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귀국 보고서

성명	학번	소속(대학,과,전공)	
경서연		경영경제대학 글로벌경영학과	
프로그램	장학교환	파견국가 및 대학	영국 골드스미스런던대학
파견기간	2021:2-2022:1	연락처	

1. 파견대학에 관한 기본 정보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은 영국 런던의 동쪽인 New Cross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 최대 대학 연합체인 런던 대학교(University of London)를 구성하는 17개의 대학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 순수미술, 공연예술 등의 예술 계열 전공으로 유명하며 대표 졸업생들 또한 데미안 허스트, 안토니 고폴리, 제임스 블레이크 등 예술 관련 분야 출신이 대다수입니다. 런던에 위치한 대학들 중 보기 드문 캠퍼스형 대학으로, 캠퍼스 중심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고 이를 둘러싼 여러 개의 강의실 건물, 도서관, 학생회관 등이 있으며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이 캠퍼스에서 학교 생활을 합니다.

2. 지역 및 생활에 관한 기본 정보

캠퍼스가 있는 New Cross라는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큰 일 없이 학교생활을 잘 마치고 있지만 동네가 깨끗하지 않고 안전한 편이 아니다 보니 되도록이면 근처의 다른 동네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런던 시내만 둘러보신 분들이라면 이 동네를 처음 가보시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도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모습을 가진 곳이다 보니 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대부분이 적응하는 것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 기숙사 리스트 중 대부분이 뉴크로스, 혹은 그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만 딱 한 개의 기숙사가 템즈강 위에 위치해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인 Quantum Court라는 기숙사이고 Shadwell이라는 지하철역과 아주 가깝고 학교까지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숙사에 살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지역이었습니다. 가까운 런던 시내까지 20분이 채 안걸리고, 뉴크로스와 비교했을 때 훨씬 조용하고 안전한 편입니다. 그리고 런던 존1과 아주 가까운 존2의 경계에 있는 집들 중 주당 렌트 200파운드 내외의 방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기숙사는 개인 화장실과 공용 주방을 사용하는 en-suite 옵션 기준 주당 199파운드였습니다. 기숙사 렌트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꼭 기숙사에 살지 않아도 되니, 만약 예산이 충분하고 선호하는 거주 지역이나 형태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을 들여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활비는 천차만별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적게는 월세를 제외하고 월 700파운드부터 많게는 2,000파운드까지 지출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외식, 쇼핑, 문화생활, 여행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런던에서 짧은 시간 지내며 비용 때문에 생활에 큰 제약을 받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충분히 잡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식이나 유흥을 자주 즐기진 않았었지만, 뮤지컬이나 콘서트를 많이 보고 여행도 꽤 자주 다니는 편이었어서 한 달에 900~1,500파운드 정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물가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1.6배 정도로 느껴졌었고, 이외에 특별히 더 비싸다고 느꼈던 것은 주로 외식비와 교통비인 것 같습니다.

3. 수강과목 및 수업활동에 관한 정보

수업들과 관련해서는 일단 영국 대학의 커리큘럼은 한국의 제도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학사가 3년제이며 1년에 3학기로 이루어져있고, 가을, 봄, 여름 학기 중 가을과 봄 학기에 실제로 수업을 수강하고 여름 학기에는 지난 두 학기에 수강했던 과목들의 남은 과제와 시험을 치룹니다. 만약 한 학기 교환학생이라면 가을 학기(9~12월) 혹은 봄+여름 학기(1~6월) 둘 중 하나로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최대 4과목 뿐이기 때문에 영국 교환학생을 희망한다면 파견 전에 충분히 학점을 채워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대에서 한 학기에 주로 7,8과목을 수강하던 저에게 한 학기 4과목이 처음에는 적게 느껴졌지만 사실 짧은 기간 내에 적은 수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유학생들이 처음이었고 영국의 특이한 수업 제도에 적응하느라 더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주로 lecture, seminar, tutorial이라는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을 듣게 되고 각 수업마다도 대면, 실시간 비대면, 녹화 등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간표도 매주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만 해도 신경 쓸 것이 많았습니다.

저는 가을학기에 4과목을 수강했고 봄학기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하고자 3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상명대에서 파견된 골드스미스 교환학생은 정식 명칭이 study abroad programme student이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해당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 리스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순수미술과 같이 실기 위주의 전공은 수강하기 위해 따로 포트폴리오와 같은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외의 전공들은 본인의 상명대학교 전공과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로 교양 과목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study abroad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런던 도시 탐험, 박물관 투어, 공연 관람 등의 수업이 있는데 저는 그 중 매주 연극을 보고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는 수업을 수강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국 공연 예술에 관심이 커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본교 전공 학점으로는 인정이 안되지만 영국 런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배운 것도 많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었던 경험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외의 수강 과목으로 저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제 경영 관련 4과목과 평소에 공부해보고 싶었던 예술경영 수업 2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전공 수업과 관련해서는 상명대 본 전공의 커리큘럼에 있는 수업들과 일대일로 매치되는 수업만 전공 학점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미 상명대에서 수강했던 수업과 비슷한 제목이나 내용의 수업은 학점 인정이 어렵다고 하니 신청 전에 미리 학과장님께 확인을 받은 것이 확실하고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University and College Union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영국 전국적으로 교수, 강사, 직원 등이 해고나 페이 등의 문제로 몇 차례 파업이 있었고 특히 골드스미스의 특정 학부에는 전국적인 움직임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파업이 장기적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을 학기 중 3주, 봄 학기 중 4주 동안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과목 강사와 교수의 파업 참여 여부에 따라 상황이 달랐지만 제가 수강한 과목의 절반 이상은 영향을 받아 파업 기간 동안의 수업이 모두 취소되었었습니다. 보충수업을 했던 과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측에서도 꾸준히 등록금 반환 요청을 시도했었습니다.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된 파업과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환 요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년도에는 물론 학생들이 영향을 받은 것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피해 정도에 따라 학과별로 소액의 보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파업이 있을지, 혹은 그에 따른 학교의 보상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타 수업 외 활동에 관한 정보

골드스미스에는 society라고 불리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스포츠부터 학문 관련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가입과 활동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각 동아리의 특성상 코로나 이후 활동이 크게 위축된 곳도 있고 관련 전공 학생들 위주로만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동아리에 가입했었지만 모두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으니 미리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동기나 선후배의 개념이 매우 약해서 학교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기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하나의 전공에 속하지 않고 여러 학부의 수업을 수강하다보니 classmate들과 가까워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개인 학습과 개인 과제가 기본적인 편이고, 학생들의 연령대와 각자 경험이나 관심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 상 대형 강의일수록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어렵고 분위기 자체가 정말 수업만 들으러 학교에 가서 수업이 끝난 후 각자 하교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같은 기숙사나 학교 이벤트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가까워지고 싶다면 학기초에 자주 열리는 유학생 대상 소셜 이벤트나 런던 투어, 또는 캠퍼스 내에 있는 술집인 student union bar에서 하는 여러 파티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5.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가 후 얻은 것/성취한 것에 관한 정보

얻은 것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일단 교환학생 파견 전 유학 경험은 단 일주일도 없고, 해외 여행 경험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에 입학할 당시부터 교환학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서 아이엘츠 시험을 준비하던 때를 포함해서 거의 항상 영어를 조금씩이라도 사용하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거라 예상했지만, 문제는 영어로 수업을 듣고 공부와 과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어 점수 조건인 아이엘츠 overall 6.0을 넘었기 때문에 preessional course 수강이 필수는 아니었지만, 유학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영국 대학의 수업 방식과 에세이 작성 등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 당시 평일에 매일 영어 수업을 들었던 여름방학의 5주동안 가장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 대학의 과제는 대부분 에세이로 제출하는 방식인데, 문장과 문단을 구성하는 방식부터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참고문헌 작성법까지 꼼꼼히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또한 영국 대학에서는 일방적인 강의를 제외하고 세미나 또는 튜토리얼이라는 이름의 색다른 수업이 있는데 이때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경계 없이 의견을 나누며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Preessional course 수강 이후 과제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막상 런던에 도착해서 수업을 들어보니 수업을 알아듣는 건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리스닝에 가장 자신이 있었고 아이엘츠 리스닝 8.0을 받을 정도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을 알아듣고 따라가는건 단순히 리스닝의 영역이라기 보다는 academic 영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한 수업과 연관된 영어는 무조건 개인적으로 시간을 들여 공부를 해야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경험을 하는 것이 더 큰 배움이라고 느껴서 academic 영어에 있어서는 큰 실력 향상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 제가 직접 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십 편의 공연을 보고 수십 군데의 갤러리를 다니면서 세상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모든 일에 조금해하는 성격이었는데, 교환학생 기간동안 정말 다양한 모습의 넓은 세계를 보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앞으로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한국에서만 살며 보고 들었던 것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기회들과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도시와 나라들을 여행하며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을뿐더러 이렇게 큰 세상에 내가 살아

갈 방법 하나 없겠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동안 평생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선택들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준 시간이었습니다.

6. 기타 참고사항(도착 후 해야할 일, 비자 신청, 현지 생활 등 관련 팁)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해야할 일이 있다면 영국의 의료 서비스인 NHS에서 본인 등록번호를 받아두고, GP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가야할 일이 생긴다면 NHS number와 등록된 GP가 있어야 예약하는 등의 절차가 비교적 수월할겁니다.

6개월 미만의 교환학생이라면 따로 비자 발급이 필요 없지만 그 이상이라면 학생 비자 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 서류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지만, 딱 한가지 파견교에 발급을 요청해야하는 서류인 CAS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아이엘츠 점수까지 모두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전부 제출하고 신청 완료 후 unconditional offer를 여름이 되기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학교에서 언제부터 CAS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정해진 날짜를 알려줄거고, 그 정보에 따라 최대한 빠른 날짜에 신청하여 CAS를 받아두셔야 비자 신청과 발급을 여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 신청 시 영어 성적을 제출해야하는데, 이때는 아이엘츠 UKVI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환학생 신청 시에는 일반 아이엘츠 성적표도 상관없지만 비자 신청시에는 꼭 필요한 것이니 두 번 따로 보시지 않도록 미리 UKVI로 신청하여 시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